

재밋다, 즐겁다, 배움이 있다...살아있는 바다 교육장

해조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2014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의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간소하게 치러지고 있지만 휴일과 어린이날·석가탄신일이 낀 황금연휴에만 14만명이 다녀가 관람객 목표인 60만명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세월호 추모 분위기 속 행사축소에도 관람객은 늘어=이번 박람회는 관람객 60만명 유치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박람회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5일에만 5만 3522명이 입장해 일일최대 방문기록을 경신하였으며 나흘간의 연휴기간에만 약 14만명이 방문하여 6일까지 누적관람객 47만여명이 입장했다.

추모 분위기 속에서 요란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일부 취소하거나 축소했지만 해조류를 주제로 한 이색 전시가 인기를 끌면서 관람객이 늘고 있다.

입장권은 4일까지 현장에서 14만1673매를 발권했고 사전예매 입장권은 52만여매를 판매, 60만명 유치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 연휴기간에 읍내를 비롯한 명사십리 펜션 등 숙박업소는 100% 만실을 기록했고, 속소를 구하지 못한 관람객 200여명은 청소년수련원과 가족숙박시설에서 묵기도 했다.

◇다채로운 전시관도 눈길=풍부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감동을 안겨주는 전시관 연출도 호평을 받고 있다.

해조류 박람회장의 상징 건물인면서 유일한 고정 시설물인 '주제관'은 '해조류는 생명이다'는 내용으로, 생명의 바다, 해조류의 주제 영상관으로 꾸려졌다.

중심은 조각유리를 일일이 붙여 만든 우리 타워로, 조명시설을 설치해 완도항의 수준 높은 야경을 연출한다. 주제관 외에도 4개의 전시·체험관과 해조류 체험장, 해조류 요리 교실, 식품체험관, 해양문화존 등 다양한 전시관이 관람객을 사로잡고 있다.

주제관·생태환경관 등 다채

미래의 식량자원 생생한 체험

바다 세계 3D영상 보며 탄성

환경의 중요성도 절로 깨우쳐

생태환경관에서는 물방울 키워드로 본 해조류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고, 잡수정을 타고 해조류와 관련된 지구 생명탄생 역사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수심 10m의 바다 속에서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해조류를 직접 만날 수 있어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 건강식품관에서는 '바다의 보약 해조류'를 주제로 4개 존 17개 코너로 구성됐다. 역사 속 해조류, 몸을 치유하는 해조류, 해조류가 음식으로 변신하는 미래의 식량 대체자원으로 가치를 보여준다.

이 밖에 산업자원관에서는 '미래자원의 보물창고'를 주제로 3개 존 13개 코너로, 해조류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식품을 제외한 비료, 에너지, 건축, 플라스틱, 섬유, 의약품, 종자, 화장품, 예술, 펄프 등 10개 분야의 해조류 산업의 현황과 비전을 선보이고 있다.

◇전북 시식 체험도 인기=세계 첫 해조류를 소재로 펼쳐지는 박람회답게 해조류를 직접 먹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인기다.

박람회 조직위에 따르면 건강식품관내 시식체험 코너인 '완도바다 전복궁'이 상상한 완도산 전복으로 관람객들의 입맛을 사로잡

고 있다.

한국전북산업연합회 완도군협회 주관으로 운영되는 전북 무료시식행사는 완도산 전복을 다시마로 쌈 싸서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 관람객들이 길게 줄을 서 시식행사를 즐길 정도로 전시 기간 동안 늘 행사장이 북적이고 있다.

해조류박람회 건강식품관도 인기다. 역사 속 해조류, 몸을 치유하는 해조류, 미래의 식량 대체자원으로의 가치 등을 보여준다. 난중일기에 기록된 전두식량 미역밥 등 선조의 해조류 음식 지혜와 다시마를 불로초로 여겼던 진시황의 해조류 식품 일화도 소개한다.

◇어린이 사로잡는 3D 체험=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은 국내 최고화질의 3D영상으로 체험하는 '바다 세계'다. 갯바위를 그대로 옮겨놓은 타이포프, 해산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촉각 체험장 등도 인기다.

박람회장을 찾는 어린이들에게는 매표소에서 무료로 입장권을 발권하고 입장권을 소지하면 완도타워, 장보고기념관, 운선도유적지, 완도수목원 등 주요 관광지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람회 조직위 관계자는 "눈으로만 감상하던 기존 박람회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먹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면서 "이번 박람회는 해조류의 소개뿐 아니라 바다 환경의 중요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이것 놓치면 후회

녹지않는 아이스크림·하얀 해삼



녹지 않는 해조류아이스크림 체험.

"녹지않는 아이스크림과 하얀 해삼이 있다고?"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의 가장 인기있는 전시물은 '녹지않는 아이스크림'과 '백해삼' (白海蔘)이다. 흰 백해삼은 희 불 수 없는 백해삼은 어린이들을 비롯해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고,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은 좋은 추억을 안겨주고 있다.

박람회 조직위는 녹지않는 해조류 아이스크림을 선사하기 위해 일본에서 기술을 전수해 왔다.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직접 먹어볼 수 있어 더욱 인기몰이 중이다.

이 아이스크림은 해조류 등 각종 재료를 사용해 만들고, 상온(15~25도)에서 일반 아이스크림보다 40분가량 늦게 녹는 신기한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 체험 프로그램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1회당 10명씩 신청받아 총 52회를 운영된다. 참가비는 1000원.

또 전시관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해안선 갯바위를 실제 옮겨놓은 듯한 '생태 환경관'이며 이곳에서 선보이고 있는 수종의 백해삼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박람회 조직위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생태 환경관'에 각가지 바다생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최근 청산도에서 잡은 백해삼을 전시하고 있다.

백해삼은 백해삼과에 딸린 극피동물이며, 내장이 보일 정도로 반투명하고 빛깔이 백색을 띠고 있기에 백해삼이라고 한다. 해녀들도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하는 희귀종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해삼과는 색깔과 모양새가 달라 관람객들이 한참 들여다 보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백해삼은 해조류 박람회장 생태환경관에서 오는 11일까지 전시한다.

박람회 조직위 관계자는 "해조류의 중요성과 미래 발전 가능성 등도 눈여겨봐야 하지만 우리가 평소 보지 못했던 신기한 전시 프로그램이 풍성해 관람객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



촉각 수조에 있는 해조류를 직접 만져보면서 살아있는 바다를 배우는 아이들.



아이들이 3D로 펼쳐지는 해조류 영상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해조류 라면과 국수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생생한 전시관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연휴를 맞아 박람회장을 찾은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전시관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완도군청 제공>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대한민국, 미국, 독일, 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이태리 가구 40% OFF SALE

www.hong79.com(홍친구닷컴) 신상품 다량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동구청옆) 가구빌딩 ☎ 1899-0240 이태리가구 직수입 판매 5월19일까지 한정판매